

• 풍향계 •

대덕밸리-나가사키현 기업들, ‘짜짓기’



▲ 나가사키현 방문단을 위한 설명회

나가사키현 시청관계자, 나가사키현 대학교수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테크노마트, 나가사키현 정보서비스산업협회, JETRO 나가사키 무역정보센터, JETRO 서울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나가사키현 중소기업들과 대덕밸리 업체들간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 위해 기업설명회, 상담회, 기업방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졌다.

나가사키현 방문단은 대덕밸리 IT업체들간 상호 제품기술 협력방안을 위해 기업설명회를 가진 뒤 관심 있는 업체를 방문하고 업체별 상담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한국테크노마트 김철우 회장을 비롯해 나가사키 정보서비스산업협회관 요우이치 회장, JETRO 서울센터 나카무라 소장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덕밸리 기술에 대해 꼼꼼히 메모해 가며 경청했다. GIS와 연계해 개인별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Position’ 제품을 시연한 지지21 이상지 사장은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에 ‘ePosition’ 진출을 위해 고민하던 중 이번 기회가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시오페아를 찾은 나가사키현 관계자는 “가시오페아의 ‘사이버마라톤’ 제품은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장 현실시스템과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방문단은 에이팩과 제3정보통신을 찾아 제품기술, 가격, 해외시장 진출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테크노마트 김재영 이사는 “나가사키현은 기존 조선 산업에 IT산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대덕밸리를 벤치마킹 모

지난 달 19일 일본 나가사키현 IT업체들과 대덕밸리 벤처들 간의 만남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나가사키현 방문단의 지난 8월 방문에 이어 대덕밸리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찾은 것이다. 방문단은 IT관련 중소기업 12개 업체를 비롯해

델로 삼았다”며 “앞으로 나가사키현과 대덕밸리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전광역시-나가사키시 산업 교류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사전 조율이 미흡해 시측의 협조를 제대로 얻어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 본격 출범

대덕밸리 첨단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본격 출범했다.

대전시는 발기인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발기인 총회에는 대덕밸리 산학연관을 비롯하여 금융계, 유관기관 소속 발기인이 모두 참가해 안전심의, 정관승인, 이사회 구성안 등을 통과시켰다.

본격 출범한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은 대덕연구단지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 대전시를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앞으로 고주파 부품 산업지원센터와 바이오 벤처타운,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대덕밸리 소프트타운 등 첨단산업관련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 운영 지원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발기인들은 대전시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임시의장 겸 발기인 대표로 선임했다. 그러나 정관심의회와 이사회 선임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특히 정관 중에서 각종 사업 및 임원 선출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관변경의 건의가 받아들여 졌다.

또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이 신임 이사로 선임됐으며 대덕테크노밸리는 이사 선임에서 제외됐다. 발기인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전문성과 혁신성을 두루 갖춘 이사를 추가 선임키로 했다.



▲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 발기인 총회

• 풍향계 •

‘막내 사원을 위한 교육’ 마련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CEO를 비롯한 이사급 주요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막내사원’을 위한 소양교육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대덕넷 이석봉 대표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 내에서 벤처기업들의 막내 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 교육 내용은 ‘직장인 매너와 에티켓’, ‘서류정리’, ‘특허권 관리’, ‘직장인 감각 패션전략’, ‘주식회사란 무엇인

가’, ‘재무제표 읽는 법’, ‘비전 설정 및 능력개발’ 등 직장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교육은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들이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없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신입사원 교육과 직원들의 소양교육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덕밸리의 한 벤처기업인은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는 벤처기업의 현실 속에 이러한 교육은 마련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신제품/신기술 •

인텍플러스, ‘3차원 체형측정기’ 출시



척추가 ‘S자’ 형으로 휘어지는 질환인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3차원 체형측정기’가 개발됐다.

정밀측정 전문벤처기업 인텍플러스(대표 임쌍근)는 레이저 프린터의 작동원리와 기

존 레이저방식 3차원 스캐너 방식을 활용해 사람의 체형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IBS-2000 3차원 체형측정기’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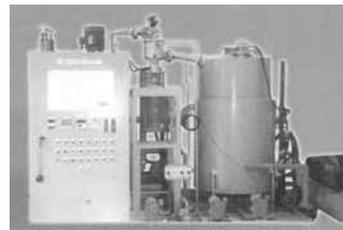
이 장비는 저출력 레이저를 체형에 한번 주사해 등고선 무늬의 3차원 체형정보를 분석해 낸다. 측정된 형상의 분석도는 0.2mm 오차 범위 내이며 0.5초 이내에 모든 체형 정보가 자동으로 분석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촬영에서 정보출력까지 전과정의 프로세스에 시스템화된 진단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때문에 척추의 만곡을 비롯해 몸의 미세한 비뚤어짐, 근육장애 등 체형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진단 후 체형이상 질환에 대한 치료방향 설정과 치료효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의 동작 및 측정원리를 이용하면 척추측만증 진단뿐만 아니라 의류, 가상현실, 문화재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 042-828-5700

기가씨앤이, 공해방지시설 ‘클린파워’ 출시



기가씨앤이(대표 최각진)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소물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신개념 집진장치 ‘클린파워’를 출

시했다.

이 제품은 각종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을 열분해시켜 완전 연소하도록 하는 친환경 공해방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용량 보일러에 사용되는 에멀존 시스템 ‘GCE-25-X’와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되는 고온 에멀존 시스템 ‘GCE-30-X’로 나뉜다. 에멀존 시스템은 증유와 유화제, 물을 정량으로 자동제어함으로써 에멀존유를 원터치 방식에 의해 전자동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소규모 공장 등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된다. 고온 에멀존 시스템은 에멀존 시스템에 제트 버너 등을 사용해 대용량의 에멀존유를 연소시키도록 한 전자동 방식으로 열병합 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오염방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연료비를 2~13.6%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보일러와 다양한 용량의 보일러 등에 설치가 가능한 범용성을 갖추고 있다.

문의 : 042-360-0800